



Market Index / 20일

코스피지수 ▲ 2386.85 +15.88	코스닥지수 ▲ 790.72 +8.39	유가(WTI, 달러) ▲ 100.74 +1.32	환율(원)	1USD 1335.46 100¥ 965.81	살때 1289.54 팔때 932.59	1EUR 1369.80 1CNY 203.98	살때 1316.36 팔때 184.56
---------------------------	-------------------------	-------------------------------	-------	-----------------------------	-------------------------	-----------------------------	-------------------------

마늘·양파 재배면적 통계 어느 게 맞나?

올해 양파 제주도는 698ha, 통계청은 946ha로 차이 상당도, 작년 드론 전수조사... 통계청은 "과학적인 세밀조사"

제주에서 재배되는 채소류 면적에 대한 제주자치도와 통계청 발표의 수치 차이가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작물 재배면적과 생산량 통계는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정확도가 중요하고, 발매가격 등 가격 형성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농업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정확한 통계를 요구받고 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도내 마늘 재배면적은 1238ha로, 전년(1337ha) 대

비 7.5% 감소했다. 또 양파는 946ha로 전년(906ha)에 견줘 4.4%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직 공식통계 발표 전이긴 하지만 제주도가 집계한 마늘 1290ha와는 52ha 차이가 난다. 양파는 제주도가 집계한 698ha, 생산예상량 4만4072t과 비교하면 통계청 발표가 248ha·2만3409t 더 많아 어느 통계가 더 정확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각각인 채소류 통계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통계청은 표본조사 방식으로 집계하고, 제주도는 매년 5~6월

읍면동을 통한 농가 재배의향조사와 작물 파종 직후인 9~10월 재배면적신고 조사와 농협의 자체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조사 등을 참고해 재배면적을 산출해 왔다. 하지만 농가의 재배의향과 재배면적신고 참여율이 높지 않아 정확한 농업통계의 필요성을 요구받아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도내 전체 농경지를 대상으로 드론을 타고도로 띄워 관측한 10개 채소류의 재배면적을 12월 발표하기도 했다. 작물별 관측결과와 농가의 재배면적 신고 필지별 분석을 통한 2차례의 검증을 거쳐 산출해냈는데, 구마늘의 경우 1232ha로 행정의 자체조사(1504ha)와 272ha 차이가 났

다. 양파 재배면적도 26ha 차이가 났다. 제주에서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채소류인 월동무는 697ha 더 많은 5467ha, 당근은 293ha 적은 1202ha로 파악되기도 했다.

통계청은 마늘과 양파 수확기인 5월 중순~6월 하순 제주를 포함한 전국의 2ha 단위의 표본 조사필지를 현지방문, 실측조사해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조사 방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통계청은 논밭 비율, 채소종, 과수종 등의 특성을 구분해 1~9층으로 표본을 층화시켜 세밀하게 통계를 잡는 과학적인 방법"이라며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지기도 한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숲·해변에서 즐기는 제주 웰니스

도·관광공사, 9월초까지 여름휴가시즌 기획전 자연·숲치유 등 3가지 테마·40여개 상품 선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제주 웰니스 힐링 여행 상품 기획전을 오는 9월 15일까지 도내 일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웰니스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기획전은 자연·숲치유, 힐링·명상, 만남·즐거움 치유 등 3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40여 개의 다양한 웰니스 힐링 상품들로 구성됐다.

자연·숲치유 테마는 환상숲곶자왓공원의 숲투어, 머체앗숲길의 숲길 투어, 의귀리 마을의 숲길 승마 등 제주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힐링·명상 테마는 제주901에서 진행되는 대표적인 요가·명상·비건 힐링타임, 요가베르데와 오르머호스트의 숲속에서 즐기는 요가 프로그램, 들랑의 싱잉볼 테라피 등 청정 제주의 자연에서 즐길 수 있는 상품이 마련됐다.

아울러 WE호텔 웰니스센터의

수중 요가클래스, 아쿠아댄스와 로페달보드의 패들요가 상품 등 이색적인 웰니스 상품도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만남·즐거움 치유 테마로는 제주동백마을, 제주하호암, 토도아뜰리에 등 마을의 로컬음식으로 즐기는 원데이 힐링 클래스 상품들이 준비됐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지난 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번 기획전은 오픈 10일 만에 100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구매했던 만큼 뜨거운 반응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제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오션뷰 요가, 숲길 승마 프로그램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전의 자세한 내용은 제주관광공사 비즈제주 홈페이지(www.visitjeju.com)에서, 예약 및 이벤트는 취미·여가 플랫폼 프리프 홈페이지(www.frip.co.kr)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마늘 재배방법 개선해 인건비 절감·기계화 촉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마늘 재배 방법 개선을 통해 인건비 절감 및 기계화 촉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마늘은 생육기간이 길고 재배과정(쪽 분리→파종→비닐피복→비닐 타공(마늘을 꺼내는 작업)→수확→줄기 절단→건조 등) 각 단계마다 노동력 투입이 많아 인건비 부담이 크다.

마늘은 쪽으로 분리해야 하고 형태가 불규칙한 중구 특성으로 파종 작업 기계화가 어렵다. 비닐피복 작업 및 피복 후 마늘을 꺼내는 작업에 인력 소모가 크고 비닐로 인해 수확작업 시 기계화 도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피복 소재를 플라스틱비닐에서 액상밀칭제로 바꿔, 인건비를 절감하고 기계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비닐 피복 과정을 생략해 전과정 기계화에 속도를 낸다. 이태운기자



해안도로 걷는 관광객들 20일 제주시 구좌읍 해안도로를 찾은 관광객들이 청정 제주 바다를 구경하며 걷고 있다. 이상국기자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전국서 적립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사의 데이터를 연계해 21일부터 하나

의 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시 보행·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용자(현재 전국 40만명)는 대중교통비의 최대 30%(국가·지자체 최대 20%, 카드사 최대 10% 분담)를 절감할 수 있다. 2020년 도입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는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모바일 알뜰교통카드사별 사업지역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돼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문미숙기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기업 모집

도, 28일까지 40개사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6일 제주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해외바이어·무역상사 초청 제주 수출상담회에 참가할 도내 수출업체(농수산·가공식품, 화장품 등) 40개사를 이달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수출상담회에서는 상품전시와 함께 참여업체와 바이어 간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신남방국가(베트남, 싱가포르 등) 해외통상자문관을 초청해 현지 시장동향을 소개하고 수출전략을 자문하는 등 기업들과의 상담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참가 후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내 수출상품에 관

심을 보이는 바이어 초청항공료, 샘플 운송료, 해외출장 항공료까지 후속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제주 수출기업은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www.jejutrade.or.kr) 홈페이지의 사업신청란을 참고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통상물류과(064-710-2627)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진흥팀(064-805-3395)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침체된 수출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남방국가 등 신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운기자 lty9456@ihalla.com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국내육성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원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향, 껍질 벗기기 쉬워 소비자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강자!
-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원리 생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호)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 하례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공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 제라몬** 향량 및 높아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걸로 평가되는 품종.
-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만개)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리향, 신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만개)

하귤, 팔삭, 세이늘,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몬,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문의: 010-202-202-9)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장! **사전예약** 탕빛1호, 선경, 주문생산, 설봉미, 미니몬, 무봉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트묘, 화분묘 분양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농모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증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1(수산리735)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감귤묘목

유라조생	2~3년생
유라실생	5년생
천혜향	3~5년생
황금향	3~5년생
한라봉	3~6년생
남진해	3~4년생
성전온주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탐라봉	3년생
원터프린스	3년생
감귤	3년생
진지향	3년생
탕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증자관리사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3년 봄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 천혜향(특호), 황금향, 원터프린스, 한라봉, 사라향(천혜향신품종), 탐나는봉, 카리향, 탕빛1호, 명유자, 아마나스, 레몬, 탕자1~2년생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베니(궁천변이), 유라실생
(유라,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2년생 본당 1만원 특별분양 선착순)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근도로변)

증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증묘

대표 : 010-2691-1883
 (관리자 : 010-9480-1564)